

융합형 ‘래도’에 대하여

李 智 涼*

I. 序 論

적어도 국어에서 아무런 기능도 담당하지 않는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휘적 형태가 어휘 의미를 가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문법 형태들을 문장의 統辭構成에 관여하는 문법적 기능과 아울러 어휘적 요소들 사이의 의미 관계를 보이는 문법적 의미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의미 기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문법 형태들이 단순히 문법적 기능만을 보이지 않고 意味에도 관여한다는, 지금에 와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실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주어진 문법 형태 혹은 형식이 문법 기능이나 의미 기능 중 어느 하나만을 포함하는가, 한 형태가 가지는 문법 기능과 의미 기능은 얼마나 긴밀히 연관되는가, 문법 기능이 바뀔 때 의미 기능은 또 어떻게 바뀌는가, 또 그 반대는 어떠한가 등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그러나 문법 형태들이 가지는 주된 기능이 문법 기능이든 의미 기능이든 한 형태가 가지는 기능이 쉽게 파악되는 일은 드문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여러 형태가 연결(Joining)되어 이루어지는 문법형식들에서는 그 구성 형태들이 가지는 정확한 기능을 밝혀 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 형태들의 연결로 이루어진 어미 혹은 조사와 같은 문법 형식들의 기능을 파악하는 데 있어, 모든 개별 형태들의 기능이 밝혀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오히려 연결 형식들의 形態分析

* 국어국문학과 조교

과 그 형태들의 連結方式 등을 살펴봄으로써 連結形式들뿐 아니라, 그 連結形式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형태들의 기능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리라 생각된다.

이 글에서 필자가 논의하려고 하는 ‘래도’¹⁾는 특이한 連結方式을 보이는 형식이며, 하나의 형태소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랬어도’, ‘래셔도’와 같이 連結形式의 내부에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있으며, 개입되는 요소도 한 형태소를 깨고 들어가 연결되는 접요소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1) 너래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 1)' 너랬어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 2) 아버님이래도 그 사람에게는 당할 수 없다.
- 2)' 아버님이래셔도 그 사람에게는 당할 수 없다.

둘 이상의 형태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문법 형식들은 그 구성 형태들이 가지는 통사 기능보다 한정된 통사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²⁾ 구성 형태들이 단독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와는 관련이 적은 듯이 보이기도 하는데, 각 형태가 가지는 고유한 의미 기능과 연결 형식들에서 해당되는 형태의 의미 기능 사이의 관계가 우리의 관심을 끈다. 어떤 문법 형식이 동일한 모습으로 다른 통사적 환경에 출현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래도’는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대표적인 형식이라 할 수 있다.

- 1) ‘래도’는 표준어에서는 ‘라도’이지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래도’를 다른 또 하나의 ‘라도’와 구분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래도’를 쓴다. ‘래도’는 중부 방언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경상도 방언에서의 ‘라캐도’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준어에서의 ‘라도’가 실질적으로 전혀 다른 돌로 나뉠 수 있음은 본고의 전반에 걸쳐 논의될 것이지만, 구분의 기준은 우선 ‘라고 해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해 두며, 여기서의 ‘래도’는 ‘라고 해도’로 대체될 수 있는 형식에 해당된다.
- 2) 예를 들어 ‘어도’, ‘어야’ 등에서 ‘어’는 ‘도’, ‘야’와 통합하여 접속어미로 기능하게 되지만, ‘어’는 종결 어미로도 사용되며, 그 분포도 다양하다. ‘도’, ‘야’도 마찬가지이다.

- 3 a) 상감 망건 사러 가는 돈도 집어 쓸 판이다.
- b) 상감 망건 사러 가는 돈이래도 집어 쓸 판이다.
- c) 영희가 양귀비래도 그 사람을 유혹하지는 못한다.

3b) 와 3c)의 ‘래도’는 동일한 形式이지만 3c)의 ‘래도’가 접속어미의 기능을 가지는 데 비해, 3b)의 문장에서는 ‘래도’를 접속어미로 보아 앞에 주어로 “그 돈이” 정도를 보충하게 되면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3c)의 ‘래도’는 ‘라고 해도’의 융합형으로 구성 형태 중 ‘라’는 종결어미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나, 3b)에서는 같은 융합형이라 하더라도 ‘라’를 어미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의미의 측면에서 볼 때 3b)의 ‘래도’는 오히려 3a)의 ‘도’와 같이 亦同의 의미 기능을 갖는다고 생각되므로 ‘래도’와 ‘도’의 대치 관계에서 ‘라’의 기능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4.1 참조)

‘래도’는 전통문법³⁾에서 「亦同補助詞」 또는 「다름한만」 등으로 다루어지던 것인데 표면형식이 ‘래도’로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形式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 4) 바보래도 그런 사실은 안다.
- 5) 영희래도 합격해야 할텐데.

4)의 ‘래도’는 ‘도, 조차’ 등과 함께 전통문법에서와 같이 亦同으로 해석되어도 무방하지만 5)의 ‘래도’는 亦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만, 나마’ 등과 함께 선택을 보이는 특수조사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4)와 5)의 ‘래도’가 각각 다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형식이라 볼 것이다. 즉 5)의 ‘래도’가 ‘라’와 ‘도’의 직접적인 연결형인 반면 4)의 ‘래도’는 ‘라(고) 해도’ 연결 형식이 소위 융합(fusion)의 과정을 거친 융합형이라 생각한다. 4)의 ‘래도’에 대한 방언형으로 ‘래도’,

3) 周時經(1910).
 崔鉉培(1957) 참조.

‘라캐도’와 같은 형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대상은 3b) 4)에서와 같은 융합형 ‘래도’이다. 3b)의 ‘태도’는 亦同의 의미기능을 가지므로 3a)의 ‘도’와 유사하며, 선택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라도’⁴⁾와 다르다. 또한 접속어미로 분류될 수 있는 ‘래도’와 동일한 형식을 가지지만, 구성요소들 사이의 응집력이 더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의 목적은 ‘래도’와 같은 융합형들의 형태를 분석하고, 그 구성방식을 검토하여, 융합형과 구성형태들 사이의 의미론적 관련성을 설명하려는 데에 있다.

Ⅱ. 형태 분석의 가능성

표면적으로 ‘라’와 ‘도’의 직접적인 연결형으로 보이는 표준어의 ‘라도’는 의미론적 함의가 전혀 다른 두 형식으로 나뉘어 생각되어야 한다.

- 6) 선생님이래도 모른다.
- 6)' 선생님이라캐도 모른다.
- 7) 너래도 참아야지.
- 7)' *너라캐도 참아야지.

6)7)에는 모두 ‘라도’가 쓰이고 있는데 6)은 “선생님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는 話者의 가정이 전제되고 있어야 하며, “선생님보다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물론 모른다.”가 함의되어야 하는 반면 7)은 “다른 사람은 참지 않았다.”의 함의를 포함한다. 여기서 6)의 함의와 7)의 함의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6)의 함의는 서술부가 6)과 평행하게 나타나지만, 7)의 함의에서는 그 서술부가 7)의 서술부를 부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일한 형태가 반대의 함의를 가질 수는 없으므로 6)과 7)의 ‘라도’는 같은 형태로 생각될 수 없다.

4) 梁嶺錫(1973) 참조.

우리는 6)7)의 '라도'가 각각 다른 기능을 담당한다는 사실로부터 이들 '라도'가 표면적인 형식은 같지만 내부의 구성방식, 즉 형태소의 연결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암시를 받게 된다.

다음 예들을 보자.

8) 내가 영화라도 화를 내겠다.

9) 영화는 여자라도 말이 적다.

6)7)의 '라도'가 조사의 기능을 가지는 반면 8)9)의 '라도'는 어미로 쓰인 예들인데 8)에는 "내가 영화라고 가정한다"는 가정이 전제되지만, 9)에는 이런 가정이 전제될 수 없다. 8)9)는 접속어미로서 각각 다른 기능을 갖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음에도 의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8)9)의 '라도'가 단일한 형태인 '라'와 '도'가 직접 연결되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6)의 '라도'가 가정을 포함한다는 사실은 8)이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6)의 '라도'가 적어도 '라'와 '도'가 직접 연결된 형태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실제로 중부 방언 화자들 가운데는 6)과 7)의 '라도'를 각기 다른 형태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⁵⁾ 6)의 '라도'의 방언형은 '래도'⁶⁾로 나타나는 반면 7)의 '라도'는 그대로 '라도'로 나타나며, '래도'로 나타나지 않는데, 6)7)에서의 경상도 방언 어형 '라캐도'로의 대체 가능성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 명확히 보여 준다. 중부 방언에서 '래도'에 해당되는 어형은 '라캐도'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7)의 '라도'는 7)에서처럼 '라캐

5) '라도'중의 일부는 '라고 해도'의 융합형으로 생각되는데 중부방언에서는 '하'가 재구조화되어 '해'가 어간으로 행동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중부 방언 안에서도 모든 話者가 재구조화된 어간 '해'를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하여'에서 '해'로의 재구조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해'의 활용형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라도'에 대한 구분 의식도 모든 중부 방언 화자에게 있어 동일하지는 않다.

6) 실제로 중부방언 화자들의 발음은 '래두'이지만 '도~두'의 변이 문제는 본고의 논의와 무관하므로 '래도'로 표시하기로 한다.

도'가 사용될 수 없다.

- 10) 먹어 {라도, 래도??} 보아라.
- 11) 사지는 못하나마, 구경 {이라도, 이래도??} 했으면 좋겠다.
- 12) 뭘 수 없으면 걸기 {라도, 래도??} 해라.
- 13) 박사 {라도??, 래도}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 14) 영희가 양귀비 {라도??, 래도} 철수를 유혹할 수는 없다.
- 15) 먹으 {라도??, 래도} 안 먹으니 이상하구나.

10)11)12)의 '라도'는 특수조사 '나' 또는 '나마'와 대치관계에 놓이며, 13)의 '라도'는 '조차'와 대치될 수 있다. '나', '나마'와 '조차'는 채완(1977) 등에서 각각 다른 의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류된 바 있는데, 일부 방언의 화자들이 이러한 다른 의미 양상을 인식함으로써 10)11)12)의 '라도'와 13)의 '라도'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듯하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된 바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론적 측면에서 볼 때, 전자에는 가정이 포함될 수 없는 반면, 후자에는 가정이 포함될 수 있다. 즉 10)에서 “먹는다는 사실”, 11)에서 “구경하는 사전”, 12)에서 “걸기” 대신에 다른 요소를 대치하여서는 話者의 의도가 드러날 수 없는 반면, 13)에서의 “박사”는, 話者가 “적어도 남들보다는 많이 아는”사람으로 전제하고 있어야 가능한 요소이다. 또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라면 “박사”에 제한될 필요도 없다. 즉, “박사”는 話者가 생각해낸 극단적인 후보의 대표일 뿐인 것이다. 가정이 나타나는 이유는 10)의 '라도'가 '래도'로 인식된다는 사실에서부터 '라고 해도'라는 복합형식의 융합형이라는 데에 생각이 미치면 설명될 가능성을 얻게 된다. 즉 '라고 해도'에서의 '해'가 가지는 의미에서 가정의 의미 기능으로도 출해될 수 있는 실마리를 풀 수 있게 될 것이다. (IV장 참조)

중부 방언에서의 '래도'를 '라고 해도'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은 14)15)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14)15)는 '라도'가 사용되면 어색하며 '래도'가 사용되어야 비로소 자연스러움을 얻게 되는데 이때의 '래도'는

14)‘15)‘에서처럼 ‘라고 해도’로 대체되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14)‘ 영희가 양귀비라고 해도 그 사람을 유혹하지는 못한다.

15)‘ 먹으라고 해도 안 먹으니 이상하구나.

14)15)와 14)‘15)‘는 아무런 차이를 보여 주지 않으므로 접속어미 ‘래도’가 ‘라고 해도’의 융합형임은 의심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앞의 예문 6)7)의 ‘라도’를 ‘라고 해도’로 대체해 보기로 하자.

6)“ ?선생님이라고 해도 모른다.

7)“ *너라고 해도 참아야지.

6)은 ‘래도’가 자연스러운 문장이었으나 7)은 어색한 문장이었는데 6)‘7)‘에서처럼 ‘라고 해도’로 대체하면 6)7)의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6)의 ‘라도’는 7)의 ‘라도’보다는 어미 ‘라도’와 더욱 긴밀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6)‘가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선생님”을 서술어로 하는 주어를 상징할 수 없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해도 모른다.”를 상징했을 때는 이미 6)‘와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6)의 ‘라도’가 접속어미 ‘라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가 7)‘보다 더 자연스러움은 14)‘15)‘에서 보이는 접속어미의 기능과 의미상의 유사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해도’의 융합형인 ‘래도’와 ‘라’, ‘도’의 직접 연결형인 ‘라도’의 구분은 ‘어도’와의 대치관계에서도 파악될 수 있다.

16) 철수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할 수 있다.

16)‘ 철수는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할 수 있다.

17) 간단한 일부터라도 시작해야지.

17)‘*간단한 일부터어도 시작해야지.

16)과 16)‘에서처럼 ‘라고 해도’의 융합형인 ‘래도’는 ‘어도’로의 대

치가 가능하지만, 17)과 17)'에서처럼 직접적인 연결형인 '라도'는 이런 대치가 가능하지 않다.

위의 예들에서 볼 때 '라도'와 '태도'에 연결되어 있는 '도'가 기본적인 의미기능이 동일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더라도, 문법적 기능이 다른 '도'에서 왔을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

이런 사실은 앞에서 보았듯이 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었', 존경의 선어말어미 '시'의 개재 가능성으로부터도 확인된다.

- 18) 선생님이 {태도, 랐어도, 래셔도} 그 문제는 못 풀다.
 19) 아버님이 {라도, *랐어도, *라셔도} 그 일을 하셔야지요.

'태도'는 '라고 해도'로부터의 융합형이므로 '고 하'의 융합 과정에서는 時制 形態와 尊敬接尾辭 등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반면, '라도'는 '라'와 '도'가 직접 연결된 形式이므로 時制 形態나 尊敬接尾辭가 개재될 여지가 없다. 이는 '라도'가 動詞 '하'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形態이므로, 動詞語幹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時相 先語末語尾 또는 尊敬接尾辭가 나타날 수 없는 데서 기인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태도'가 '라고 해도'로부터의 융합형임은 다른 方言形들로부터도 확인될 수 있다. '태도'와 관련되는 방언형으로는 '라캐도'가 있는데 '태도'와의 비교로부터 흥미있는 사실이 발견된다. 이들 方言形들은 나타나는 지역은 相異하지만, 표준어 語形이라고 할 수 있는 '라도'에 대응되는 것들인데, '라캐도'로부터 '태도'가 '라도'의 음운론적 변화 결과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라고 해도"에서의 '해'가 고려되지 않는 한 '라캐도'는 설명될 수 없으며, '태도'의 'ㅈ'모음도 '해'의 'ㅈ'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융합형 '태도'의 형태분석 가능성을 '라'와 '도'의 직접적인 연결형 '라도'와의 비교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 분석은 음운론적, 형태론적으로 융합과정을 타당성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의미론적으로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융합형을 구성하고 있는 형태들이 각각 본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능과 관련이 없다면 형태분석은 아무런 의의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Ⅲ. 융합 과정

3.0 지금까지 表面形態가 동일하게 '래도'이어도, 形成過程의 차이에 따라, [라+도]의 구성을 갖는 것과, [라+고+해+도]의 구성을 갖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았다. 이렇듯 자기 다른 구성으로 이루어진 形式을 表面的인 구조가 같다고 해서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면, '래도'와 '래도'가 갖는 意味나 기능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게 되며, 반대로 의미나 기능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철저한 形態分析을 거치지 않고 '래도₁', '래도₂'와 같이 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하는 것은 가능한 설명을 포기하려는 태도일 것이다.

여기에는 보다 중요한 논의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形態分析이 가능하다고 해도 복합 형식들이 갖는 의미와 기능이 복합 형식들을 구성하고 있는 形態들의 산술적인 결합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논의들은 대체로 두 방향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다. 첫째는 形態素가 音素와 마찬가지로 자의성을 가지지만 그 형태소들의 통합체인 복합 형식은 자의적이 아니라는 것이며, 둘째는 복합 형식들이 보이는 의미가 반드시 그 구성 형태들의 종합이 아니므로 복합 형식도 구성 형태들과 무관하게 恣意的이라는 견해이다.⁷⁾

前者의 見解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생겨나는 難點은 복합 형식이 가지는 意味나 機能이 반드시 부분들의 산술적 결합이 아니라는

7) 전자는 Hockett(1958).

후자는 Aronoff(1976) 참조.

데에 있으며, 後者를 따를 경우는 그 복합 형식이 가지는 有緣性(motivation)이 문제될 수 있다. 즉 이러한 有緣性이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有緣性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後者이기는 하지만 어떤 양상으로든 각각의 부분 형식 혹은 형태들이 가지는 意味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든 부분 형식들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을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前者에 가까운 태도를 취한다. 복합 형식들의 의미를 설명하는 方式 중의 하나는 “부분적인 有緣性(partial motivation)”이다. 즉 복합 형식들의 의미가 그 부분들의 意味에서 부분적으로 유도된다는 주장인 바 이는 다시 “기호 $a+b$ 가 $A+B+C$ 의 意味를 갖는다”고 설명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C”라는 새로운 意味가 첨가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다.

‘라도’와 ‘래도’도 복합 형식이므로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됨은 당연하다. ‘라도’와 ‘래도’의 의미가 ‘라’, ‘도’, 또는 ‘라’, ‘고’, ‘해’, ‘도’라는 부분 형식들의 의미의 결합일 수 있는가, 또는 결합이라고 할 때 그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라’, ‘고’, ‘해’, ‘도’ 각각의 形式들이 가지는 意味나 기능들에 대한 解明이 先決課題가 된다.

아래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각 부분 형식들의 기능을 살펴보고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한다.

3.1 形態論에서 융합(fusion)의 개념은 축약(contraction)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 같다. 일반적으로 축약은 일정한 환경에 놓인 연결형에서는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반면, 융합은 문법체계 전반에 걸쳐 있지 않고, 극히 제한된 어휘들에서만 주어진 形態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래도’의 경우를 살펴보자. [라고 해 X]의 구성이 모두 [래 X]로 융합되지는 않는다.

- 20) 대통령이 (라고 해도, 래도) 세금은 내야 한다.
- 21) 그 사람이 (래면, 라고 하면) 우리 일을 맡길 만하다.
- 22) 저 바위는 항우 장사 (라고 해야, 래야) 들 수 있다.
- 23) 이러한 현상을 융합이 (라고 해 두자, 래* 두자).
- 24) 저 호수를 작은 바다 (라고 해 보자, 래* 보자).

20)21)22)와 23)24)의 차이는 전자에서 '해'와 그 뒤에 오는 요소 사이에는 형태소 경계가 놓이는 반면, 후자에서는 단어 경계가 온다는 사실이다. 이런 예들이 다른 예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보편적인 설명을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해' 뒤에 단어 경계가 올 때에 융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라고 하'가 제한된 요소들과의 결합 아래서만 융합됨을 확인하게 된다. '라고 해'가 형태론적 축약, 혹은 음운론적 축약으로 '래'가 된다고 할 때 23)24)의 예문을 설명해 내기란 용이하지 않다. [라고 해 X]에서 [래 X]로 되는 변화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융합인 것이다.

국어에서 새로운 어휘가 형성되는 대표적인 것으로 실사화, 허사화 등이 잘 알려져 있는데, 이외에도 混態(blending)가 있으며, 넓게는 특수한 계층에서 사용하는 은어들에 나타나는 letter word, 혹은 syllable word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실사화, 허사화가 문법체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머지는 형성된 어휘들이 일반 언중들에게 쉽게 수용되지도 않으며, 문법체계 안에서 설명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바꾸어 말하면 전자는 언중들의 언어능력으로 새로운 어휘의 형성에 관한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지만 후자는 이들의 언어능력의 한계 밖에 놓여 있게 된다. 후자의 방식들로 이루어진 단어들의 형성과정이나 형태소 구성방식을 알기 어렵다는 사실이, 더욱 논의가 진전되어, 둘 이상의 형태가 결합되어 하나의 형식을 이룰 경우에, 새로운 단어의 구성 형태들과 해당 단어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융합은 구성 방식이 후자와 유사하지만, 국어의 문법체계 속에서 설

명될 수 있을 것 같다.

국어 화자들은 ‘래도’라는 형식에 접했을 때, 쉽게 ‘라 해도’ 또는 ‘라고 해도’를 예측할 수 있는데, 이는 융합형 ‘래도’의 구성 방식을 인식할 수 있는 言語能力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융합형은 混態(blending) 등과는 달리 文法體系 안에서 파악될 수 있으며, 또 파악되어야 할 필연성을 가지게 된다.

3.2 ‘래도’의 융합이 일어나기 전의 形態를 ‘라고 해도’, ‘라 해도’로 잡은 데서도 시사된 바 있지만, ‘라고 해도’의 융합 과정에서 先決되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는 ‘고’에 관련된 것이다. 즉 ‘래도’의 구성 형태들 속에 ‘고’를 포함시킬 것이냐의 여부가 관심을 끄는데 우리는 ‘라고 해도’를 상정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라고 해도’가 융합되어 나타나는 다른 方言形 ‘라캐도’에서 찾을 수 있다. ‘래도’를 ‘라 래도’로부터의 융합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설명하려면 ‘라캐도’의 ‘캐’이 설명될 수 없다. 한 方言形에서는 ‘라 해도’, 다른 方言形에서는 ‘라고 해도’가 융합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國語의 ‘고’가 담당하는 기능이 방언에 따라 차이를 가진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 판단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고 해도’가 융합 과정을 통해 ‘래도’가 되려면 여전히 ‘고’ 脫落의 문제가 남게 된다. 이는 ‘고’가 가지는 본래의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 같다. 서태룡(1979)에서는 ‘고’의 表面의 통사적 기능을 모든 복합문 구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모든 복합문의 基底論理構造에 ‘고’를 설정하여 ‘고’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역설적으로 말하여 ‘고’가 가지는 기능이 한정된 意味를 주로 表現하는 것이 아니라, 두 요소를 연결하는 문법적 기능이 주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고’가 나타내는 의미는 先·後行要素들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관심사인 융합형 ‘래도’는 ‘라고 해도’가 단일한 語尾構造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안에 다시 두 요소를 연결하는 형태인 ‘고’를 포함해야 될 필연성은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라고 해도’에서 ‘라 해도’를 유도해 낼 수 있다.⁸⁾

3.3 ‘라 해도’에서 ‘래도’로의 융합 과정은 음운론적으로 설명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융합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ㅎ’脫落이 일어나야 한다. ‘ㅎ’의 脫落은 대체로 유성적 환경에서의 약화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아홉→아음”, “전화→전와” 등에서처럼 한 단어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의적 약화 현상과, “좋다”, “노랗다” 등 전통적으로 불규칙용언에서의 ‘ㅎ’脫落 등이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의 규칙화가 아닌, 유성음 사이의 ‘ㅎ’脫落이 ‘라 해도’와 같은 융합형에서도 설명될 수 있는 가능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 해도’가 ‘래도’로 융합되려면 ‘ㅎ’脫落에 이어 음운론적 축약에 의해 ‘라내도’가 ‘래도’로 되고, 다시 短母音化가 일어나 ‘래도’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세 음운 규칙들의 순서는 적어도 단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現象이며 單語 境界를 넘어서는 적용될 수 없는 규칙들로 보인다. ‘ㅎ’脫落의 경우, 단어 내부에서 ‘아홉’이 [아음]이라는 수의적 음성 변이형들을 가질 수는 있지만, “작고 흰 꽃”에서와 같이 ‘ㅎ’이 단어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脫落될 수 없는 것 같다. ‘ㅎ’脫落이 일어날 수 없는 한, 규칙 적용 순서상으로 볼 때 ‘라 해도’가 ‘래도’로 융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융합을 음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어 경계가 삭제되어 하나의 단어나 형태소로 굳어진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이러한 음운 규칙의 적용 과정에서는 또 하나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ㅎ’脫落과 모음 축약이 일어난 다음에 나타나는 ‘래도’形式이 言語現實에서 存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8) ‘고’의 완전한 탈락이 이루어진 것이 중부 방언의 ‘래도’라면, 융합형 속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 경상도 방언의 ‘라캐도’라 할 수 있다.

- 26a) 코끼리라고 해도 메뚜기 배에는 당할 수 없다.
 b) 코끼리래도 메뚜기 배에는 당할 수 없다.
 c) 코끼리래도 메뚜기 배에는 당할 수 없다.

26a)의 ‘라고 해도’를 의식하여 26b)와 같이 ‘래’를 장음으로 발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융합 과정이 음운론적으로 설명불능이라고 포기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들을 형태론적인 과정으로 설명하려 한다. 이런 종류의 융합이 국어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연결에서만 가능하다는 3.1에서의 논의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라고 해도’에서 ‘래도’가 되는 융합이 형태론적인 사실이라도 의미론적으로 지지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라고 해도’에서 ‘고’의 脫落을 전제하는 경우 ‘라 해도’를 이루고 있는 形態들의 意味機能이 ‘래도’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가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IV. 意味의 問題

‘래도’의 융합에 참여하는 요소인 ‘라’, ‘해’, ‘도’의 기능을 확인하는 일은 그 하나하나가 새로운 주제가 되어야 할 만큼 커다란 작업이다. 한정된 지면에서 이들 각각을 詳論하는 일은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먼저 ‘래도’의 의미 기능을 검토하고, 기존의 업적들을 토대로 ‘라’, ‘해’, ‘도’ 각각이 ‘래도’의 융합에서 담당하는 의미론적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4.1 ‘라도’는 전통 문법에서 ‘ㄴ들’과 함께 “亦同補助詞”, “다른한만” 등으로 설명되어 왔으며, 양인석(1973)에서는 “as the last recourse, even as the last recourse”로 다루고 있는데, 전통 문법에서 언급된 ‘라도’와 양인석(1973)에서 논의된 ‘라도’는 그 의미기능이 다를 뿐 아

니라, 形態論的 構成도 달리 하는 것들이므로 구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이미 II장에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 전통 문법에서의 ‘래도’는 ‘라고 해도’의 융합형으로 ‘래도’에 대응되는 것이며, 양인석(1973)에서 논의되고 있는 ‘래도’는 적어도 ‘해’를 포함하는 융합형으로는 생각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논의의 초점이 융합형 ‘래도’에 있음을 기억하고 있으므로 먼저 ‘래도’가 갖는 의미기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주시경(1910)에 보이는 “스승이라도 모르오”에서의 ‘래도’에 대한 설명을 인용해 보자.

“이 말에 이라도가 다름한만이니 스승이 그 알아나일 學力이 尋常한 사람보다 더하나 (밑줄은 필자) 모르기에 이르러서는 다 한가지라. 이러함으로 이 結果는 서로 같음에 돌아가는 것이라.”

최현배(1957)의 설명도 이와 대동소이한데, 전통문법에서 보이는 이상과 같은 논의는 ‘래도’가 ‘도, 조차, 까지, 마저’와 같은 특수조사와 유사한 기능을 보여주는 바 이러한 조사들은 모두,

27) A {도, 조차, 까지, 마저} B”

- ① A 아닌 어떤 것이 B
- ② A가 B

에서의 ①②와 같은 함의를 가지는데 ‘래도’도 이들과 다르지 않다. 즉, “황희 정승이라도 화를 내겠다.”는 “황희 정승 아닌 어떤 사람이 화를 내겠다”와 “황희 정승이 화를 내겠다”의 함의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래도’의 의미기능을 ‘도, 조차, 까지, 마저’와 비교하는 일은 ‘래도’의 의미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8) 선생님 {까지, 조차, 마저} 그 문제를 모른다.

29a) 선생님이래도 그 문제는 모른다.

b) 박사래도 그 문제는 모른다.

c) 철수래도 그 문제는 모른다.

‘까지, 마저, 조차’를 사용한 28)의 예문에서 “선생님”은, 話者가 그 문제를 풀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선생님”이라는 특정한 인물이었음을 뜻하는 반면, 29a)에서의 “선생님”은 반드시 선생님일 필요는 없다. 話者가 그 문제를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후보로 “선생님”을 가정한 것이다. 따라서 29)에서는 “선생님”을 “박사”로 바꾼 b)의 예문에서도 話者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는 差異가 없으며, 또 c)의 예문도 “철수”를, 話者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극단적인 후보로 가정할 수 있으면, 성립되는 문장이다.

이렇게 볼 때 ‘래도’는 話者가 해당 문맥에서 긍정적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보이는 어휘에 붙을 수 있으며, 서술부가 부정적으로 전개될 때 사용되는 形式임을 알 수 있다.¹⁰⁾

‘래도’가 가정을 포함한다는 사실은 다음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 30) a)?: 가장 어려운 책이래도 읽었다.
 b) 가장 어려운 책 (까지, 조차, 마저) 읽었다.
 31) 가장 어려운 책이래도 읽었겠다.

30a) 는 일반적인 묘사문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장인데 이것은 30)에서 나타난 ‘었’이 상황이 완결되었음을 보여주므로 이미 완결되어 드러난 상황을 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가정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 30b)가 자연스러운 문장임과 쉽게 비교될 수 있다. 30a)의 “읽었-”에 추측의 선어말어미 ‘겠’이 통합된 31)의 예는 자연스러워진다는 사실에서도 ‘래도’가 가정의 의미기능과 긴밀히 연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이는 접속어미 ‘어도’가 지니는 양보의 기능과 동일하다. 차이가 있다면 접속어미 ‘어도’가 先後行要素로 문장(Sentence)을 요구한다면, ‘래도’는 先後行要素가 문장보다 작은 단위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로부터 '래도'가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32) A래도 B

① A 아닌 어떤 것이 B

② A가 B

③ A는 話者에 의하여 극단적이라고 가정될 수 있는 요소.

4.2 위에서 '래도'가 가지는 의미 기능을 살펴보았다. 이제 '라 해도'를 구성하고 있는 形態들의 의미를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라'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융합형은 '래도'외에 '래야', '래면'¹¹⁾등이 있으므로, 이들이 가지는 의미 기능의 유사성을 검토함으로써 '라'의 의미 기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3) 그 문장은 미국인이래도 이해할 수 없다.

34) 이 옷은 마음이 착한 사람이래야 볼 수 있습니다.

35) 철수래면 그 여자를 당해내겠다.

36) 영화래도 시험에 붙어야지.

위에서 '라'연결 형식인 '래도, 래야, 래면, 라도'는 모두 다른 특수 조사와의 대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라는데, 라니까, 라지만' 등의 접속어미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後者에서의 '라'는 인용조사의 성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라 생각되어, 융합형을 이루며 文法的 機能을 달리하는 前者와는 구분된다.

위의 예들에서 '라'연결 형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의미 특성은 바로 [극단성](polarity)인 것으로 보여 진다. 즉 34)35)36)에서 '래야, 래면, 라도' 앞에 오는 요소들은 話者가 주어진 상황에서 극단적인 후보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극단성]은 '라'에서 비롯되는 사실로 생각되는데, '라'의 의미 특성은 李琬鎬(1983)에서 "화자의 주

11) '래도, 래야, 래면'은 모두 '라고 해'에서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형식이므로 '래도, 래야, 래면'에 대신해서 '래'로 표시될 수 있다.

관적 의도”로 논의된 바 있다.

‘라’ 연결 형식이 가지는 [극단성]은 이러한 ‘라’의 의미 특성 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서법상의 제약으로도 나타난다.

- 37) *철수래도 썩썩하다.
- 37) ‘철수도 썩썩하다.
- 38) 너래도 모르겠다.
- 39) 너라도 참아라.
- 39) ‘너도 참아라.

37)과 같이 묘사문에 ‘래도’가 사용되면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이 되며 추측이 포함되는 38)의 예문처럼 話者의 主觀이 반영된 文章에서라도 자연스러움이 얻어지는데 이는 다른 ‘라’가 포함된 33)~36)의 예문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3)34)는 話者의 판단(가능), 35)는 話者의 추측, 36)은 話者의 기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現象은 융합형이 아닌 직접 연결형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데, ‘라’와 ‘도’의 직접적인 연결형인 ‘라도’가 포함된 39)의 문장을 39)’와 비교하여 보면 39)’의 ‘도’가 단순한 亦同의 意味를 가지는 데 비해 39)에서 ‘라도’와 통합된 ‘너’는 마지막 후보가 되어 있어 ‘라도’가 가지는 극단성을 확인할 수 있다.¹²⁾

李恒默(1982)에서는 ‘도’를 극어 형성 토씨로 보아 “철수도 이 둘을 들 수 있다.”와 같은 문장으로 돌아가면 “철수”라는 인물의 극성에 대한 정보가 미리 주어지지 않는 한, 이 때의 ‘도’는 亦同으로밖에 생각될 수 없다.¹³⁾ 이에 비해 “철수래도 이 둘을 들 수 있다.”는 “철

12) 지금까지 논의는 ‘라도’가 ‘라’와 ‘도’의 직접적인 연결형임을 전제로 했으나, 여기에서의 ‘도’가 지금까지 밝혀진 ‘도’의 성격과 동질적인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다. 그러나, ‘라’가 다른 융합형 혹은 연결형에서 가지는 의미 기능인 [극단성]을 포함하고 있고 ‘라도’가 하나의 형태로 생각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들은 분석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13) ‘도’가 역동과 함께 극어 형성의 기능을 한다는 사실이 반드시 ‘도’가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는 필연성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

수"에, 話者가 극단적인 인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전제가 들어 있으므로 적격한 문장이 된다. 이로부터 '라'는 "철수"가 이미 [극단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임을 보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는 종결어미 '라'가 "話者의 主觀的 意圖"를 보인다는 사실과 연관될 수 있다.

4.3 '래도'가 가지는 가정의 의미 기능을 '라도'와 비교하여 보면, 융합형 '래도'를 이루고 있는 요소 중 '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 같다.

40) 언어학자래도 그 문자를 해독할 수는 없다.

41) 철수라도 와야 할텐데.

40)에서 "언어학자"는 話者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는 인물임에 반하여, 41)에서의 "철수"는 話者가 아무런 가정을 하고 있지 않은 구체적인 대상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하'가 가지는 가정의 기능은 '하'가 융합형을 이루어 조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기 전의 '하', 즉 간접인용문에서의 動詞로서 가지던 意味機能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가 形式動詞인지 代名詞로서 기능하는 것인지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하'는 "가정하다", 또는 "여기다"의 代動詞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42) 내가 영희라고 하여도 화를 내겠다.

43) 이 책을 초간본이라고 하여야, 다른 책들과의 관계가 파악될 수 있다.

44) 우리 집에 들어 왔던 사람이 철수였다고 하여 보자.

위의 예들에서 '하'는 "가정하다", "여기다"로 해석될 수 있어, '라'와 함께 융합형을 이루어 조사로서 기능하는 형식인 "래도, 래야, 래면"은 그들 융합형의 가장 뒤에 나타나는 形式인 '어도, 어야, 으면'이 모두 접속어미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서태룡(1979)

다. 본고에서는 단지 '도'가 가지는 극어 형성의 기능이 '래도'가 가지는 극단성을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관점에서 이를 인용했다.

에서는 ‘으면, 어도, 어야’가 모두 조건의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음이 논의되고 있는데, ‘라’에 의한 융합형들이 가지는 가정의 의미 기능이 이들 접속 어미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도, 어야, 으면’에서의 조건은 현실성을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지만, ‘라’가 결합된 ‘래도, 래야, 래면’에서는 그 현실성을 쉽게 믿을 수 없는 가상적인 조건 즉, 가정이 드러나는 것에서 우리는 가정이 ‘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미 융합형들에서는 하나의 형태론적 구성으로서, 그 기능이 이들을 구성하는 형태들이 하던 통사적 기능과는 달라졌더라도, 원래의 의미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다시 융합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조건과 가정의 類似性으로부터 ‘으면, 어도, 어야’가 가지는 조건이 ‘하’가 가지는 가정과 구분이 어려울 때, 가정의 의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하’의 脫落이 가능해져서, 표준어 어형인 ‘라도’가 導出되며, 方言에 따라서는 이들의 구분을 인식하지만 두 의미 기능의 유사성에서부터 ‘해’의 부분적 탈락, 즉 ‘ㅎ’의 탈락이 음운론적인 조건과 일치될 수 있으므로 ‘래도’로의 융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래도’가 ‘라도’와 달리 ‘하’를 포함하고 있음은 다음의 사실로도 파악될 수 있다. 즉, ‘라도’가 ‘라고 해도’의 융합형이고, ‘라도’는 ‘라’와 ‘도’의 직접적인 연결형이라면 ‘라고 해도’에 융합되어 있는 ‘하’ 動詞가 가질 수 있는 다른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이 어떤 모습으로든 융합형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래도’ 속에 ‘었’이 개재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

- 45) 바보래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 46) 바보됐어도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 47) 만화책이라도 읽어야지.
- 48) *만화책이랐어도 읽었어야지.

위의 예들에서 '래도' 内部에는 과거 시제 형태소 '었'이 介在될 수 있는 데 비해, '라고'에는 이런 요소의 끼어듦을 허용하게 되면 어색한 문장이 되어 버리고 마는데, 이러한 사실은 '래도'가 '라고 해도'로부터의 융합형으로 그 구성요소 가운데 '하'가 가지던 기능이 남아 있는 사실로부터 설명이 가능해진다.

4.4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는 '도'에 관련된 것들이다. '도'는 전통적으로 '亦同'의 의미 기능을 가지는 助詞 또는 後置詞로 다루어져 왔는데 '래도'에서의 '도'는 위의 예문 46)에서 볼 때, '어도'에서 기원됨을 알 수 있지만, 47)에서의 '도'는 접속어미 '어도'로 볼 수는 없다. 융합형 '래도'의 통사적 기능이 이미 후치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들을 보자.

49) 영희도 우산을 썼다.

50) 영희래도 갑작스런 사고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지.

51) 영희가 신이래도 그 상자 속에 든 물건을 맞출 수는 없다.

50)에서의 '래도'는 통사적으로는 51)의 구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둘은 모두 '라고 해도'로 풀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도'는 단순한 '도'라기보다는 '어도'의 구성에서 나타나는 '도'로 생각되는데 이들은 모두 양보의 의미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51)에서의 '래도'가 역동의 의미를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반면, 50)에서의 '래도'는 49)의 '도'와 마찬가지로 亦同의 意味機能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49)와 51)의 '도'가 가지는 의미기능의 유사성을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운데, 51)과 같은 접속 어미를 이루는 성분인 '도'가 50)과 같이 다시 후치사로서 기능하게 될 때 49)에서 보이는 '도'와 같이 역동의 의미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사실에서 보면, 이들에서의 '도'가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기능은 결코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49)와 51)의 '도'가 보이는 의미기능의 차이는 본질적인 의미기능의 다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

라 통사적인 環境을 달리하는 데서 생기는 2차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사실로부터 ‘래도’의 ‘도’가 접속어미 ‘어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조사 ‘도’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문제시될 수 없으며 ‘래도’가 ‘라고 해도’의 융합형임을 무리 없이 증명할 수 있게 된다.¹⁴⁾

4.5 그러나 아직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남아 있다. 위의 논의로부터 ‘라’와 ‘도’의 직접적인 연결형인 ‘라도’의 의미 기능이 설명될 수 있어야 하는데 ‘라’가 극단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은 설명될 수 있으나, ‘도’를 亦同으로 보는 한에는 ‘라도’의 의미를 설명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라도’는 선택의 의미 기능을 가지며 ‘나’, ‘나마’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조사 ‘도’의 성격이 보다 정확하게 규명될 때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V. 요 약

지금까지 ‘라도’로 나타난 형태가 모두 동일하지는 않으며, 일부는 ‘라고 해도’의 융합형으로 ‘라’와 ‘도’의 직접적인 연결형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래도’가 ‘라고 해도’로 형태 분석될 수 있으며, 이들이 형태론적 융합 과정을 거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래도’가 ‘라도’와는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복합 형식을 구성하고 있는 어미 혹은 조사들은 궁극적으로 그 구성 형태들의 의미 기능으로부터 파악될 수 있어야 하며, 융합형 ‘래도’는 이러한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직접적인 연결형 ‘라도’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연구 과제로 남긴다.

14) ‘해’가 ‘하여’로부터의 어간 재구조화의 결과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어’의 의미 기능이 본고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필자는 ‘어’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으나 ‘어’의 의미 기능이 우리의 논의에 별로 장애가 되지 않음은 다행이다.

參 考 文 獻

- 高永根(1976), 特殊助詞의 意味分析, 문법 연구 3.
- 김영희(1981), 간접 명사 보문법과 '하'의 의미 기능, 한글 173, 174.
- 徐泰龍(1979), 國語接續文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 40.
- 梁楨錫(1973), Semantics of Delimiters in Korean, 語學研究 9-2.
- 李玟鎬(1983), 후기 중세 국어의 종결어미 {-다/-라}의 의미, 國語學 12.
- 李翊燮, 任洪彬(1983), 國語文法論, 學研社.
- 李智涼(1982), 現代國語의 時相形態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 51.
- 李桓默(1982), 국어 형성 토씨 '도', 한글 176.
- 周時經(1910), 國語文法, 博文書館.
- 崔鉉培(1957), 우리말본(개정판), 正音社.
- Anderson (1977), On the Formal Description of Inflexion, in W.A. Beach, S.E. Fox, and S. Philosophy, eds. Papers from the Thirteen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Illinois, 15-44.
- Aronoff(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The M.I.T.Press.
- Hockett(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MacMillan New York.
- Kim, Renaud Young-Key (1975),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탑출판사.